



스노모빌 묘기

25일 미국 콜로라도 애스펜에서 열린 윈터 X-Games 스노우모빌 종목에서 히쓰 프리스비가 고난도 고공 점프 연기를 보이고 있다. /AP연합

EPL 3총사 FA컵 출격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박지성·이영표·설기현 주말 나란히 골사냥

이동국(28·미들즈브러)의 가세로 골 '4총사'가 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인방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이영표(30·토트넘), 설기현(28·레딩)이 이번 주말 126년 전통의 잉글랜드 FA(축구협회)컵에 나란히 출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세 명 모두 직전 경기를 쉬거나 교체 멤버로 짧은 시간만 소화해 정규리그, 칼링컵, FA컵이 주중, 주말로 겹쳐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 나름대로 체력을 비축했다.

이영표는 27일 자정(이하 한국시간) 런던 화이트하트레인 스타디움에서 FA컵 4라운드(32강) 사우스엔드와 홈 경기를 갖는다.

사우스엔드는 챔피언십(2부리그) 골짜기 토트넘의 절대적인 우세가 겹쳐진다.

이영표는 주중 아스널과 칼링컵 준결승 1차전에 그라운드를 밟지 않아 이번에는 선

발 출격이 확실시된다.

같은 시간 세인트 앤드루 파크에서 열리는 버밍엄 시티와 원정경기에 나선 설기현은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 할 때다. 레딩의 주전 스트라이커 케빈 도일이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좀처럼 선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기현은 25일 왓포드와 2군 경기에서 실전 감각을 조절했다. 지난 21일 셰필드전 후반 28분에 투입돼 20분 가량 뛰면서 막판 날카로운 슈팅으로 컨디션이 살아있음을 알렸다.

지난 22일 아스널과 라이벌전 엔트리에 들지 못했던 박지성은 28일 오전 2시15분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리는 포츠머스와의 FA컵 4라운드에 출격할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미들즈브러가 밝힌 이동국 10가지 진실

“동국, 게으른 천재가 아니더라” 체력·스테미너 EPL서도 통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미들즈브러가 26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라이언 킹에 관한 10가지 진실(Ten Thing: The Truth About The Lion King)'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동국에 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먼저 거리에서 그를 만났을 때 '리(LEE)'라 아니라 '동국(Dong-Gook)'으로 부르는 게 예의라고 밝혔다. 한국과 영국의 이름 순서가 다른 점을 알려 준 것이다.

이어 이동국이 한때 '게으른 천재'로 불렸는데 입단 테스트 중 약명높은 블립 테스트(일종의 셔블런)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그의 체력과 스테미너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전했다.

또 "이동국의 별명은 '라이언 킹'인데 이는 구단 엠블렘의 사자 문양과 잘 맞는다. 영화 '라이언 킹'의 '심바'처럼 이동국도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들즈브러는 ▲이동국 아내의 미스코리아 하와이 출신이다 ▲이동국이

매년 열리는 K-리그 올스타전에 8년 연속 선발됐고 최우수선수(MVP)도 가장 많이 수상했다(3회) ▲고향인 포항이 세계 세 번째 규모의 제철소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역시 철강도시인 미들즈브러가 편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소개했다.

▲독일 월드컵에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지만 한 이동통신회사의 광고에 출연해 대표팀 동료에게 선전을 기원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은 4강에 올랐지만 이동국은 거스 히딩크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고 결국 2년 동안 군팀(광주 상무)에서 뛰어야 했다 ▲포항의 밤 기운은 영하 13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미들즈브러의 추위가 이동국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축구 선수가 젊어진다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한국은 생일이 아닌 해를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기 때문에 이동국은 영국으로 오면서 한 살 젊어졌다"고 덧붙였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LA)를 졸업한 이한주는 작년에 한국프로골프 SBS코리언투어에서 뛰면서 준우승 1차례를 포함해 3차례 '톱10'에 입상, 상금랭킹 28위를 차지했던 선수.

나상욱(23·코오롱)도 4언더파 68타를 적어내 공동 34위를 달렸다.

한 달 이상 필드에 나서지 않았던 '황제' 우즈는 2007년 첫 라운드를 6언더파 66타(공동 14위)로 마쳤다.

초반에는 실전 감각이 무뎠던 듯 2m 안팎의 짧은 퍼팅 실수가 몇 차례 나왔지만 후반 들어 빠르게 감각을 되찾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창수, 기분좋은 출발

뷰익인비테이셔널 1R 9언더파 단독 2위
시즌 데뷔전 치른 우즈 6언더파 공동 14위

2년 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쓴 맛을 봤던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사진)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시즌 데뷔전이 된 뷰익인비테이셔널에서 단독 2위에 나서 돌풍을 예고했다.

위창수는 26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라호야의 토리파인스골프장 북코스(파72, 6천874야드)에서 치른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8개, 보기 1개를 묶어 9언더파 63타를 몰아쳤다.

11언더파 61타를 때린 단독 선두 브랜트 스니데커(미국)에 2타 뒤진 위창수는 PGA 투어에 진출한 이후 최고 성적을 올릴 기회를 잡았다.

2004년 켈리파인스골프를 통해 2005년 시즌 PGA 투어에 뛰어들었던 위창수는 23경기에서 고작 25만 달러를 벌어들인데 그쳐 투어 카드를 잃었으나 지난해 켈리파인스골프를 거쳐 PGA 투어에 복귀했다.

위창수는 그린 적중률 77.8%에 이른 정교한 아이언샷과 그린 적중시 평균 퍼트 개수



1.5개의 볼꽃 퍼팅을 앞세워 작년 서던 팜 뷰로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첫 번째 자신의 PGA 투어 대회 18홀 최소타 기록을 3타나 뛰어 넘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라는 월요예선을 치러 어렵사리 대회 출전권을 얻은 재미교포 이한주(30·클리블랜드골프)도 버디 7개를 쓸어들면서 5언더파 67타를 뽑아 공동 24위에 올랐다.

KPGA 코리안투어 올 18개대회 열린다

올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주최하는 코리안투어는 지난 해보다 1개 대회가 늘어난 18개 대회가 열린다. KPGA는 26일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에서 2007년 정기총회를 열고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투어 일정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투어 일정에 따르면 상금 3억원이 걸린 토마토저축은행 제피로스오픈이 4월26일 시즌 개막전으로 열리고 11월8일 하나투어 챔피언십을 마지막으로 총 18개 대회가 치러진다. 특히 8월30일 시작하는 KPGA선수권대회와 10월4일 열리는 한국오픈은 올해로 각각 50회를 맞게 되며 10월25일 개막하는 에머슨퍼시픽그룹오픈은 남자프로대회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금강산골프장에서 개최된다.

이와 함께 2.3부 투어인 베어리버, 켈리지, 시니어투어 등의 경기 일정도 확정돼 올 시즌은 전체 상금이 지난 해보다 9억2천만원이 늘어난 94억원에 50개 대회가 치러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천수 영국행 무산

이천수(26·울산 현대)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위건 에슬레틱 이적이 무산됐다.

울산은 지난 25일 오후 "위건으로부터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뜻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다"며 "위건 측은 협상 중단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이천수의 이적 협상 결렬 사실을 알렸다.

울산은 그동안 완전 이적은 곤란하다는 위건 측의 입장을 수용하고 지난 며칠 간 '임대 후 이적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그리고 임대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까지 이뤄졌고 이적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위건 측이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 오며 이천수의 이번 겨울 이적 기간 내 프리미어리그 진출은 사실상 불발로 끝이 났다.

울산은 "위건과 협상이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천수를 포함한 소속 선수들의 유럽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천수는 당분간 국내에서 훈련하다 다음달 2일 국가대표팀에 소집돼 2월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그리스와 친선경기를 준비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화순 소년 이용대의 헤어핀

어핀을 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열린 2007 요넥스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남자복식 8강전 정재성(삼성전기)·이용대(화순실고)-키도 마르키스·세티아완(말레이시아) 경기에서 한국의 이용대가 헤어핀을 하고 있다.